

세계적 명품의 완성자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아스터 컨트리 클럽**

반복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가입시

명품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 KIA 코치 12명 무더기 퇴출

박흥식·황병일·김동재 코치 3명 영입  
조범현 감독 “4명 정도 더 보강할 것”



〈박 흥 식 코치〉 〈황 병 일 코치〉 〈김 동 재 코치〉

조범현 체제로 새롭게 구성된 KIA 코치진에 예고된 후폭풍이 몰아쳤다. 12명이 떠나고, 3명이 새로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호랑이맨’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범현 신임 KIA 감독은 앞으로 투수와 주루, 배터리 코치 등 4명 정도를 더 영입, 15~17명선에서 코치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절반 이상이 바뀌는 것이다.

박흥식 전 삼성 타격코치와 황병일 전 LG 타격코치, 김동재 전 SK 수비코치가 KIA호에 먼저 승선했다.

대신 박승호(2군 감독), 김종운(주루), 이근열(타격), 백인호(수비), 한희민, 김정수, 김태원(이상 투수), 장재근(육성군), 야마시타(트레이닝), 정인교(배터리), 김태룡, 김지훈(이상 전력분석) 코치가 웃을 벗었다.

다만 전력분석 코치직을 맡고 있는 김태룡, 김지훈 코치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앞으로 직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KIA 코치 중에는 김종모(수석), 차영화(2군 감독), 김봉근, 이강철(투수), 구천서(수비), 이광우(육성군), 박현희(트레이닝) 코치 등 7명이 팀에 남게 됐다.

김봉근, 구천서 코치는 2군에서 선수들을 조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치진 전체 규모를 보면 2007시즌보다 일단 5명이 줄었다. 특히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KIA(해태)출신은 감독을 포함, 15명의 코칭스태프 가운데 김종모, 차영화, 이강철, 이광우, 박현희 등 5명에 불과

하다.

KIA는 전신 해태 시절부터 감독 등이 교체되더라도 코칭스태프는 큰 변화가 없었고, 주로 해태 출신들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는 분사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미 예고됐었다.

최근 단장과 부단장 등 새로운 프런티어가 들어선 KIA구단은 조범현 신임 감독에게 코치진 구성과 관련해 전권을 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8개 구단 가운데 KIA의 코치진이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웠다.

창단 후 두 차례나 최하위의 수모를 겪은 KIA 구단이 특단의 대책으로 비타이거즈 출신인 조범현 감독 선임을 영입하면서 완전 물갈이를 선택한 것이다.

조 감독은 “코치진들의 능력 및 선수단과의 조화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한 것이고, 현재 투수와 주루, 배터리 코치는 누구를 영입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며 “투수코치는 일본인 코치를 생각하고 있다. 짧은 투수가 많은 만큼 기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오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SK vs 두산 1차전 <오후 6시·인천>

### SK 레이번



‘한국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기선 제압이 내 어깨에 달렸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제1선발 케니 레이번(33)과 두산 베어스의 특급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35)가 22일 오후 6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4선승제) 1차전에서 선발투수로 맞대결을 펼친다.

지금까지 삼성이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1985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24차례 한국시리즈 중 1차전을 잡은 팀이 모두 20차례나 우승을 차지해 승률은 83.3%에 이르렀다.

2000년 창단 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SK는 첫 우승에 도전하고 두산은

### 投 대결

■ 2007년 정규시즌 주요성적

	방어율	타율	홈런	실책	장타율	출루율
SK	3.24	0.264	112	58	0.408	0.341
두산	3.44	0.263	78	79	0.383	0.343

2001년 이후 6년 만의 정상 복귀를 노리고 있어 1차전 선발 등판이라는 특명을 맡은 두 외국인 투수의 어깨가 무겁다.

선발 중량감에선 에이스 중 에이스인 리오스 쪽으로 기울다.

리오스는 올해 장명부(삼미) 이후 24년 만에 선발 22승(5패)을 수확하며 평균자책점(2.07).

승률(0.815) 각 1위 등 투수 3관왕 위업을 이뤄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예약했다.

포스트시즌 들어서도 한화와 플레이오프 때 1차전 선발로 나서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위력적인 피칭을 펼쳤고 시리즈가 3차전으로 끝나면서 6일 휴식으로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SK를 상대로 5경기에 등판, 2차례 완봉승과 완투패를 포함해 4승1패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0.23의 위력투를 과시했다.

리오스와 선발로 격돌하는 레이번도 각오가 남다르다.

레이번은 시즌 17승(8패)으로 류현진(한화)과 다승 부문 공동 2위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한 선발진의 주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두산 리오스



리오스와 두 차례 외야무 다리 대결에서는 장군명군을 보였다.

레이번은 첫 대결이었던 5월2일 두산전에서 6이닝을 4실점하고 타선의 지원을 받아 승리투수가 됐으나 리오스는 8이닝을 5실점(1자책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6월16일 재대결에선 9이닝을 1실점으로 완투하고도 완봉 역투한 리오스에게 승리를 헌납했다.

에이스 자존심과 한국시리즈 우승 명운을 걸고 1차전에 만난 두 투수 중 누가 웃을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이승엽 답답했던 2007 시즌 마감

### 1년내내 부상 연속 챔프전선 타격 침묵

▲모친 타계부상, 또 부상  
이승엽의 올 시즌은 약재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엽은 1월부터 예상치 못한 약재를 맞았다. 2002년 뇌종양 수술 후 5년 간 외병 중이던 어머니 김미자씨가 타계한 것. 이승엽은 모친을 여린 슬픔을 뒤로 하고 4번 타자로 출장한 3월30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개막전에서 2년 연속 개막 홈포를 쏘아 올리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갑작스럽게 왼쪽 어깨가 그를 괴롭혔다. 이승엽의 부상은 왼쪽 어깨 통증에서 출발, 왼쪽 손바닥 떨림 현상을 거쳐 왼손 엄지까지 이어졌다. 리그 챔프전 직전 발생한 등 통증까지 1년 내내 부상을 안고 살았다.

장래한 홈런포가 사라졌고 타율은 2할대 중반에 머물렀다. 급기야 타율 0.223에 3홈런, 7타점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남겼다. 부진이 계속되자 4번 자리를 동료에게 내주고 그는 6번으로 강등됐고 엄지 통증이 극에 달한 7월12일에는 자진해서 2군에 내려갔다. 후반기엔 타순이 7번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9월 대반전챔프전에서는 침묵  
그러다 9월9일 한신전에서 37일 만에 4번에 복귀한 뒤 일시적으로 예전 기량을 되찾았다. 정규 시즌 우승을 향한 치열한 선두 다툼이 벌어지던 때 이승엽이 해결사 기질을 발휘한 셈.

9월23일 요코하마전 0-2로 뒤지던 8회 1사 만루에서 극적인 싸움이 우중간 3루타로 승리를 이끌었고 9월 말 주니치와 사실상 순위 결정전에서도 홈런 2방 등을 쏘아 올리며 주포 위상을 되찾았다.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2일 야쿠르트전에서도 동점 투런 4타로 3년 연속 30홈런을 달성하며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약전고투 와중에 주포 이승엽이 4년 자존심을 지키면서 요미우리라는 일본시리즈 정상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에 부풀었지만 주니치의 벽은 높았다.

챔피언결정전 직전 등 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승엽은 다시 한번 주저앉았고 세 경기에서 홈런포를 한 개도 쏘아 올리지 못했다. 2차전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이승엽의 침묵타 2방은 요미우리 참패를 예고한 징조이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병규 ‘웃고’ 이승엽 ‘울고’ 주니치, 요미우리 꺾고 일본시리즈 진출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포가 3경기 연속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즈)는 일본 진출 첫 해에 일본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지난 20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선발 나가타 겐이치의 호투 속에 4번 주포 타이론 우즈의 역전 3점포를 앞세워 요미우리를 4-2로 제압하고 파죽의 3연승을 기록, 올해 처음 도입된 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일본시리즈 진출 티켓을 획득했다.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친 주니치는 플레이오프에서 3위 한신에 2연승을 거둔 뒤 리그 우승팀 요미우리마저 3연승으로 따돌려 2년 연속 센트럴리그 대표로 일본시리즈에 나가게 됐다.

이병규는 1999년 선동열, 이상훈, 이종범(이상 주니치), 2005년 이승엽(지바 롯데)에 이어 국내 프로야구를 거친 선수 중 5번째로 일본시리즈에 나가게 됐다. 반면 요미우리는 5년 만에 리그 정상에 복귀했으나 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주니치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완패를 당해 일본시리즈 진출 티켓을 놓치고 말았다.

한편 주니치는 27일부터 퍼시픽리그 우승팀 니혼햄 파이터스와 최후의 패권을 다투게 됐다. 지난 해 주니치는 센트럴리그 1위를 차지해 일본시리즈에 올랐지만 니혼햄 파이터스에 1승4패로 패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페테르센 행운의 우승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 강풍으로 3R 취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3라운드 강풍으로 인해 취소돼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우승컵을 가져 갔다.

대회조직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위 정치된 불이 움직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 이날 오전 9시15분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과 함께 회의를 한 뒤 1.2라운드 성적으로 우승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라운드 합계 3연타와 141타를 친 페테르센이 시즌 네번째 우승과 함께 36승 경기로 끝나 원래 상금의 85%인 19만1천250달러를 차지했고 지은희(21·캘러웨이)는 2연타와 142타로 2위가 됐다.

리바 갤러웨이 LPGA 부회장은 “처음에는 악천후 때문에 중단시키고 낮 12시45분 재개하려고 했으나 경기위원, 선수, 스폰서들과 상의한 결과 가장 좋은 결정은 ‘경기를 펼칠 수 없는 조건에서는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한 박세리는 “경기를 못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이 그런 위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았고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대회조직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골프장을 찾은 갤러리들은 경기 속행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1일 경주 마우나오션컨트리클럽에서 폐막된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007' 우승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여왕의 차림을 한 채 상패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보스턴 레드삭스 “최종전 가자”

보스턴 레드삭스가 베테랑 선발 투수 커트 실링(41)의 눈부신 호투에 힘입어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진출 희망을 살렸다.

보스턴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퀘이퍼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아메리칸챔피언십시리즈(7전4선승제) 6차전에서 실링의 호투와 J.D. 드루의 통쾌한 만루 홈런 등 화려하게 폭발한 타선을 앞세워 12-2 대승을 낙착했다.

이로써 보스턴은 1차전 승리 후 3연패를 당한 끝에 내리 2연승을 달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월드시리즈 티켓 다툼을 최종 7차전으로 몰고 갔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5차전과 6차전을 내리 내주며 수세에 몰려 1997년 이후 10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보스턴은 지난 2004년 뉴욕 양키스와 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3연패 뒤 4연승을 거

### 클리블랜드와 AL 챔피언 6차전 실링 패투 힘입어 12-2 대승

두는 기적을 일으키며 ‘밤비노 저주’를 풀고 86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을 탈환했다.

당시 양키스와 6차전 때 선발로 나서 ‘빛과 투혼’을 발휘하며 최종 7차전으로 이끌었던 실링이 비랑 끝에 몰렸던 보스턴을 또 한번 구해낸 것이다.

실링이 이날 7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쉼아 내며 6안타 2실점으로 클리블랜드 타선을 봉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